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開

발행인 金澤玉 주 편집인 鄭大然
편집국장 高榮哲 편집장 任尙繁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
전화: (직) 54-2278·2279
인쇄: 한라일보

第413號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등록번호 라 2497호]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1년 3월 26일

1

신입생 모집방안 바뀔듯 13개학과 전·후기 분할모집 희망 4월1일부터 정확한 자료수집작업 착수

'92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신입생을 전·후기 분할모집하는 방안이 대한 문제점과 이에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조사작업이 오는 4월1일부터 착수된다.

이는 지난 19일 오전10시 본관 상합실에서 열린 학·처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간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건의가 학내외에서 수차례 있었으나 이런 건의가 소수의 의견 또는 소수학과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계속 묵살돼 오다가 지난 2월12일경부터 3월5일까지 각 학과별 교수회의를 통해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게 됐다.

교무과에 따르면 현재 9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전·후기로 분할모집하기를 희망하는 학과는 53개 학과중 13개 학과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정원은 1백41명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입생 전·후기 분할모집을 희망하는 학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인문대학: 사학과, 사회학과

△법정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상대학: 회계학과, △자연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공과대학: 식품공학과, 기관공학과, 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한편 전·후기 분할모집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교육학과 사회조사방법론을 전공한 교수 2인에 의해 그 타당성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민족자주학교개설
27일부터 30일까지

△'90학년도 석·박사 학위논문 초록집 발간

△'90학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초록집'이 지난 2월 27일(월)에 발간됐다.

이 초록집에는 농학과 임태호(제주전대 부교수 원예과)씨의 "농사농부의 재배기술 확립에 관한 연구" 등 5편의 박사학위논문과 인문·사회과학분야 4편, 자연과학분야 28편의 석사학위논문이 수록돼 있다.

4월중 학사일정

△교육대학원 종합시험=6일
△박사학위 청구논문1차 공개발표=17일~20일
△중간시험=26일 이전

총학, 상반기 주요사업계획 발표 5월중 노학연대 강화위한 기념행사 개 정책국장 "학우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부탁"

민족자주학교를 개설한다.

△4월에는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역사적 복원작업에 일조를 하고 '4·3항쟁'의 의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사흘제를 개최하며 △4월19일에는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청년학생의 변혁적 임무를 제기하는 '4·19혁명계승대회'를 갖는다.

△5월에는 도내 노조단체와 노·학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1백3주기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5·18광주민주항쟁 11주기 기념행사가 있게 되며 △22일부터 25일까지는 진정한 민족의 문화, 민족의 건강한 문화를 청년학생의 힘으로 건설한다는 목적하에 '아라대동제'가 열린다. △5월말경에는 노동의 참의미와 현재주지국의 농촌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역운동과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한다.

△6월에는 6·10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고 92·93년의 대전환기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대중집회를 가지며 △25일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하계방학기간인 7·8월에는 각학과 학생회 간부수련회, 간부학교, 문화학교, 통일캠프등을 개설하며, 이속에서 상반기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간부수련회를 통해 하반기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총학생회 정책국장 박용배(국문고·4) 학우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학과 학우들이 직접 사업을 준비하고 참여해야만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날짜	사업명	행사내용
3월 27일~30일	새내기들을 위한 민족자주학교	대중강좌와 식으로 진행
4월 1일~7일	사월제	4·3추모제, 축제, 제, 평화대행진, 화제, 초청강연, 제총대식
4월 19일	4·19혁명31주기	노래극, 4·19사진전, 화제, 4·19계승대회
5월 1일	노동절 103주기 기념일	노·학간의 체육대회, 당국, 노·학연대의 밤
5월 17일~18일	5·18광주민주항쟁 11주기 기념일	5·18사진전, 계승대회, 영화제, 문화행사(집회, 노래극등)
22일~25일	아라대동제	각학과별행사, 전야제, 각종학술제, 전시회, 공연, 영화제, 대동놀이등
5월 말	농촌활동	학과생활의 모범을 창출
6월 10일	6·10민주항쟁 4주기	대중영화, 토론회



학우들이여 막 밝아라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로 교내 곳곳의 잔디밭에 오솔길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밝고 또 밝아 이 오솔길을 넓혀서 아예 학생광장을 만들시다. 그러면 머지않아 아라대에는 휴먼지가 휘날리는 학생의 발판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일 전체교수회의 개최 자연계열 전과조항등 학칙개정 위해

'1991학년도 제1차 전체 교수회의'가 오는 29일 오후 3시 자연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속기구 편제 및 전과와 관련한 내용의 학칙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칙 제1장 제2조(편제)1항에 행정대학원이, 3항에는 외국어교육과와 공동실용실습관이 신설된다.

대학학생정원고시에 의한 자연계열학과 학생의 전과기회를 확대한다는 교육부 방침(교육부 고시 제91-1호에의거)에 따라 학칙 제5장 제18조(전학 및 전과)6항에 '교육부가 정하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 입학정원의 10%까지 자연계열학과와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교내전과 또는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제2학년 및 제3학년에 여석이 있을 때 학년초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학칙 제5장 제18조 1항에 관계없이 교육부가 정하는 해당학과는 전과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전과기회의 폭

이 넓어지는 학과는 해양학과, 화학과, 해양학과,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공학과, 기관공학과,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7개 학과이다.

한편 그외 다수 조항들에 대한 문맥정리도 이루어지게 된다.

교무과에 따르면 이 학칙 개정안이 전체교수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에 학칙변경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90학년도 석·박사 학위논문 초록집 발간

△'90학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초록집'이 지난 2월 27일(월)에 발간됐다.

이 초록집에는 농학과 임태호(제주전대 부교수 원예과)씨의 "농사농부의 재배기술 확립에 관한 연구" 등 5편의 박사학위논문과 인문·사회과학분야 4편, 자연과학분야 28편의 석사학위논문이 수록돼 있다.

4월중 학생회칙 개정 특별기구 위상 및 설치목적 등

총학생회 회칙개정 소위원회(위원장 변재구·통공3)에서는 오는 28일 회칙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아직 각단과대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에 대한 건담회가 끝나지 않아 4월달로 미뤄지고 있다.

올해 개정될 예정인 총학생회 회칙가안에는 총학생회 이념과 청년학도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이 새롭게 삽입되며, 대의원총회 부문에는 학년대표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삽입해 대의원 2·3학년 대표로 구성한다는 대의원총회 구성문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동일한 특별자치기구로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고, 총학생회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기구로서 단과대학 문화체육회의와 총학생회회의, 인권복지위원회, 지역조사위원회에 대한 설치목적과 권한을 새롭게 삽입했다.

이 총학생회 회칙가안은 건담회를 통해 상세히 검토를 하고 건담회가 끝나면 회칙개정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월중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들하르방 尾生之信

옛날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단 남과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느날, 어떤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미생은 약속시간에 어김없이 나가 다리 아래에서 기다렸지만 웬일인지 여자는 그 시간에 나타나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던 중, 소나기가 쏟아져 개울물이 갑자기 불어났다. 그러나 미생은 '이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교각을 짚고 붙들고 버티었다. 그러나 워낙 물살이 센 지라 그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에, 무지하게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이르는 말로 尾生之信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미생과 같은 행동은 사소한 명목에 이끌려 정작 자신에게 있어 제일 귀중한 목숨을 소홀히 한,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삶의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짓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미생의 어리석음을 나무라기에 앞서 미생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신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신의'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온갖 거짓과 부정부패, 회유 정권만을 일삼는 현 정치권력층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지난 88년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그 회유책으로 '7·7특별선언'을 발표, 결국은 국민들을 기만했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수석특보담당자로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극에 달하자 기초의회선거를 앞둔 채 실시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생의 그 숭고한 '신의' 정신과 극한 대조를 보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그 삼엄한 경비태세(?)를 뚫고 태어난 '수서사건'의 배경과 내막에 대해서는 삼각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의 부도덕성과 부패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미봉책이 또다시 언제 '문제의 사생아(?)'를 낳을지 모른다. 범죄가 범죄를 낳고 뼌으로써 뼌을 잉태하는 현 우리사회의 모순을 깨부수지 않는 한 그 전철을 계속 밟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 권력을 움켜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에만 급급해 할 것인가? 지금은 국민은 차라리 어리석음지언정 무직한 자제로 일관하는 제2의 미생으로서의 정치가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민심을 잃은 정부는 급기야는 서있어야 할 곳마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京】

대학으로의 첫계단

산·수·발·전·소

• 전국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이큐 산수

이제부터 눈여겨 주목해 주십시오

왜? 하이큐 산수는 새로운 개념의 문제집 (참고서)인가—

1. 내용과 편집체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 하이큐 산수의 내용은 기존 문제집과는 달리 단편적인 설명이나 힌트는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학습지도상 꼭 필요한 대목들[Point]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사용 활자나 편집체제가 우선 깔끔합니다.
2. 지도서가 따로 있어 어느 분이라도 상세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원의 요점정리,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더 쉬운 문제나 도입설명, 풀이방법이나 공식, 모범풀이와 정답, 틀리기 쉬운 풀이나 오답, 주의사항 등을 담아 상세하고 친절히 지도를 하게 하였으며,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발전문제까지 곁들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하이큐 산수지도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산수사전과 같은 구실을 하며,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반라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 기본문제에서 수준높은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미정의] 하이큐 산수는 훨씬 전에 배웠던 문제에서 그날 배운 것,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총망라하여 다루었으므로 학력결산을 커낼 수 있음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정의] 하이큐 산수는 학교공부에 앞서가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지겨웠던 산수시간을 기다려지는 산수시간으로 탈바꿈해주는 놀라운 정통 산수전문 원강 학습교재입니다. 이제 하이큐 산수와 [미정의] 하이큐 산수의 학습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株) 共研
TEL: 631-4500 FAX: 631-6001

사단법인 한국사무능력개발원 제주지부

□ 최근 제주민원의 성격과 그 해결방안(1)

“우선 벌여놓고 보자”식 행정 집단민원 야기

관, 주민과 대화보다 공권력에 더 의존

최근들어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제주도는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개발바람에 철저히 밀려나 설 땅을 잃고 있다. 탐동매립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금악리 골프장,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고산리 화약고, 하가리 도축장, 예래동 분뇨처리장, 서사리 청과물시장 문제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민원이 발생, 지역주민과 업자·당국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차례의 기획연재를 통해 도내 집단민원의 성격과 발생원인, 사례, 지역주민·업자·행정당국의 주장과 입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유은이 씀]

강 정 호

한국자유기독교교회협의회

■ 들어가는 글

1988년 송악산군사기지지운동을 시작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수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4년에 걸쳐 진통을 겪고 있는 탐동매립 문제가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제부정고발센터가 건설부를 상대로 매립면허취소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새출발파를 모색해야 할 형편에 있다.

한림읍 금악리에서는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라레저에 대해 골프장건설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재 이지역 주민 3명이 구속 수감돼 있는 가운데 타협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최근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의에 애를 먹어 하가리에서 한 축협의 도축장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경면 고산리에서는 화약고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봉개동에서는 제주시의 쓰레기매립장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예래동에서는 분뇨처리장건설 반대운동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넴비증후군(Nimby Syndrome)’이라 하여 우려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각계에서는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는 헛소리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내집 뒷마당에는 안된다.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라 원래는 핵에너지의 해를 보면서 원자력발전소는 자기지역에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시민의 이기적인 태도를 빗대어 사용되는 넴비신드롬이 제주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금악리골프장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이 골프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을 ‘비용의 외부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극소수의 독점자본을 확산시키는 과정(현재 우리나라 산업폐수배출량의 87%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그 비용을

글 실는 차례

1. 최근 집단민원의 성격
2. 집단민원의 발생원인
 - 1) 주민들의 여부
 - 2) 허가요건 준수여부
 - 3) 관/경 유착여부
 - 4) 환경영향평가제도
3. 관의 해결의지 및 중재양상
4. 공권력 문제
 - 1) 공권력 투입문제
 - 2) 사건은폐 조작여부
5. 집단민원 올바른 해결방안

민원을 이기주의라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이다. 즉 여러가지의 요인상태들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큰 지장이 없다는 말로써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당국의 처사를 받는 것은 두번 속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당국에 1차적인 그 책임이 있다. 즉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잠재적으로 또는 실제 위험한 자원이용과 해당지역의 수질 및 대기오염상태를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들을 항상 비밀로 해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은연중에 강조 또는 환경문제에 관한 위기의식을 무산시키는 데 주력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이점을 동원하여 그 심각성을 희석시키기에 급급한 인상 또한 펼쳐 버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데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비밀리에 추진되는 가운데 해당지역주민의 의사가 아예 무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난날의 경험에서 비롯된 행정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도 커다란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공해유발의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 및 각종 개발에 주민의견수렴등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인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명시해 주면서 이 법을 넴비증후군이라 규정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원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넴비증후군에 이러한 제주지역의 현상을 빚는 것은 사안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규모가 더 큰 시설물을 갖춘다고 함과 ‘완전한 정화시설’을 믿어달라는 당국의 발표를 누가 믿겠느냐는 데서 비롯된 제주의 집단



△한라레저의 골프장 건설에 대해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지난 '90년 12월24일 이후 계속하여 반대농성과 시위를 벌였다. 위: '90.1.2.25 아래: '91.1.3

문제의 특성을 보았을때도 그러한 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더라도 이를 무시해 온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까지 제주에서 일어났던 집단민원의 성격을 볼 때 가장 많은 논란을 벌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들의’ 유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획을 시행하려 할 경우 예상되는 주민반발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일단 시공한다면 된다는 발상에서 행정당국이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의 예도 고산리에서 화약고를 건설하려는 개인업체 (주)영신의 경우와 축협의 도축장 건설, 한라레저의 금악리 골프장, 범양의 탐동매립의 경우를 거치며 허가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처사에서 불신은 더욱 증폭돼 행정당국이 제법을 비호하는 인상과 함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라는 의문까지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민원이 일단 발생했을 경우 관의 해결의지 및 중재양상을 살펴볼때도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할때 이러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의 문제가 집단 민원화됐을때는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권력등을 동원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발생한 집

단민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데 공권력은 업자인 대제법을 비호하는데 해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주민의 의사표현을 무조건 공권력이라는 물리력을 동원, 막기만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해결의 길이나에는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외를 동반한 불신감은 이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최근 2~3년에 걸쳐 벌어졌던 제주지역의 각종 집단민원의 성격을 살펴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행정당국,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기업체 삼자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어쨌든 결론은 자본주의적 자원·환경의 이용 및 정책과 환경운동가원에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부정이 아닌 단언제시 차원에서 경제부문, 행정정책부문, 운동부문에서의 접근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발단과정에서부터의 바른 이해와 함께 행정당국, 관련업자 그리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운동부문들 각계의 주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함과 아울러 각자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이에대해 기존에 수집 정리된 자료들과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면 공개함은 물론 올바른 문제인식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특히 해당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無 論 有 說 한국사회의 근대성

우리사회 다양화와 집단의 분절화는 누구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유용한가?

한국사회에서 “근대성(modernity)”이라는 말은 -특히 한국사회과학계에- 전통과 근대성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사회변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근대화, 산업화, 서구화는 거의 동의시 되는 과정 또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마치 “근대건축이 범세계적이고 역사적 진보주의를 증시해 왔던” 것처럼 “세계화의 하나”가 되는 한국사회이기를 추구해 왔다.



대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대성이라는 말 속에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로 분석되어 왔지만,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민주화가 차지하는 분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그리고 사회과학계에 대해 가져왔던 의미의 모습은 어떤 변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 또는 변동을 쫓을 수 있는 자라 하겠다.

현대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 모습(소비사회, 대중화) 속에서 나타난 “근대성이후론(post-modernity)”라는 개념, “이데올로기/운동/경향은, 경험과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인간사회의 여러 표현들 -“실천(practice)”, “그 뜻을 읽어라 할 것(text)”, “표현론(representation)”, “이데올로기”, “운동(movement)” 등-의 다양성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의 “대화(dialogue/discourse)”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현실/실체/진실(reality)”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이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최근 2~3년에 걸쳐 벌어졌던 제주지역의 각종 집단민원의 성격을 살펴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행정당국, 지역주민 그리고 관련기업체 삼자간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어쨌든 결론은 자본주의적 자원·환경의 이용 및 정책과 환경운동가원에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무조건 부정이 아닌 단언제시 차원에서 경제부문, 행정정책부문, 운동부문에서의 접근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존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발단과정에서부터의 바른 이해와 함께 행정당국, 관련업자 그리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운동부문들 각계의 주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함과 아울러 각자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국은 이에대해 기존에 수집 정리된 자료들과 아직 밝혀지지 아니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면 공개함은 물론 올바른 문제인식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특히 해당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대성이후론”은 과연 한국사회의 현재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근대성 이후”도 “근대성”처럼 어떤 변동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변동을 쫓을 수 있는 자로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사용될 수 있겠는가? 즉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 예컨대 과소비현상, 통일논의, 학생운동, “트러스트”중산층/중산층 의식의 건재, 노사간의 갈등/노동운동, 여러 집단들의 자기 목소리 만들기/내기, 정치가와 국민 모두의 정치에 대한 과민한 반응과 관심, 여전히 급격히 변하는 일상생활 등을 “근대성이후론”은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겠는가?

한국사회의 현재가 목소리의 다양화와 신화적 실재에 근거한 집단의 분절화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에게 유용한가?” 그 대답은 우리대화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모두에게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문대학 조교수

알아 보시다

군입대 휴학·복학 절차

제학중 군입대로 인해 휴학을 해야 할 경우 ‘군입대휴학원’과 ‘입영명령서사본’을 첨부하여 도서관→경리과→소속대학당장→지도교수→학과장→소속대학교무과장→학장의 순으로 인가를 받은 후 소속대학 교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휴학에는 일반휴학(가사·질병)과 병역복무휴학이 있는데 일반휴학 기간중 병역복무를 위해서 입대를 해야 할 경우 군입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복무확인서’를 학적과에 제출해야 병역복무휴학으로 처리된다.

병역복무 휴학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해당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전역후 1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 제적된다. 복학절차는 소속대학 교무과에서 소정서식의 복학원을 교부받아 경리과→예비군연대→소속대학당장→지도교수→학과장→소속대학교무과장→학장의 순으로 남인을 받은 후 ‘병역수첩사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교무과로 제출하면 복학이 가능하다. [취재부]

SAM YANG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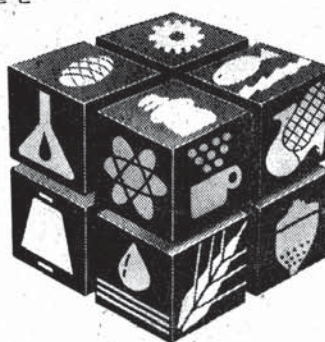
집요한 질문으로 가끔 교수님을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건방지다는 소릴 들을때가 있다

적극적인 삶, 물두하는 젊음 - 삼양그룹은 이런 젊은이들을 사랑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학구정신... 이것이 바로 삼양이 젊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1924년 이땅에 산업의 씨앗을 뿌린 이후 섬유, 식품, 사료, 기계, 화학부문을 기술의 문을 연 삼양의 개척정신은 이제 새롭고 고분자, 의료용소재 및 제약, 발효공법 등 첨단산업에 도전합니다. 미래를 이끌 뜨거운 가슴과 진지한 눈빛의 젊은이들처럼 삼양그룹은 진취적 기상으로 보다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주식회사삼양사(化學, 纖維, 飼料, 水産, 精密化學) ● 삼양중공업주식회사 ● 신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 삼양식품주식회사 ● 신원제분주식회사 ● 대한산업화학 ● 삼양중공업주식회사 ● 삼양중공업주식회사 ● 삼양중공업주식회사



교지대금징수의 타당성 여부

교지역할및 필요성 부각시켜 자발적 참여 유도바람직

지난 25일 있었던 총대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교지 '한라산' 구독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1차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교지대금 수납에 따른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분명 학생회비의 일부로 교지 발간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별도로 돈을 또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과 "학생회비 총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전학우들이 교지를 받아볼 수 없는 형편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지대금은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한라산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 강영선(국고4) 학우는 "현재 6백만원(총학생회비의 약 9.4%)과 기성회비에서 보조받는 2백만원의 예산으로는 5천부 정도밖에 발간되지 않으므로 7천 아라인 전부가 들어볼 수 없으며, 총 1천1백20여만원의 가 예산이 필요한 한라산 제31집 발간은 물론, 올해부터 실행하게 될 연2회 발간과 그에 따르는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부득이 교지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교지대금의 필요성을 전제 한 뒤 "교지 전신회·교지평가회·과별·단대별 편집위원들이 발간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선전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논의하며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발간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전 일꾼 학교'개설을 통해 교지대금화를 위한 '91년 교지발간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각 단대별·학과별·학년별 대표들을 통해 교지대금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하여 교지편집위원회측에서는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기 당 1천5백원의 교지대금을 받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4월말에 있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것이 가결될 시에는 총 2천1백여만원이 교지발간사업 예산으로 쓰여지게 되어 종전에 5천부정도 발간되던 것이 8천5백부로 증가, 모든 학우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현재 한양대·경희대를 비롯한 30여 개 교지의 육지부 대학교에서도 교지대금을 연1회나지 연2회 학기별로 받고 있고 학교지원도 별도로 받고있는 실정이고 보

면 교지대금을 별도로 받겠다는 교지편집위원의 안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듯 싶다. 그러나 이것을 단지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추종해서는 안 될 것이며 '왜 내야 하는가'와 '왜 낼 필요가 없는가'에 따른 타당한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교지 '한라산'이 학우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난 뒤 교지대금수납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대중성의 문제이다. 교지는 이름 그대로 '교지'이기 때문에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편집인들이 융통성있게 수렴하여 그것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은 편집위원의 자체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 사회과학적인 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지나친 선동성의 추구로, "우연히 학생회관을 지나갈 때 가져오긴 하지만 책꽂이에 꽂아놓을뿐 읽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인문대 모학우의 말마따나 학우들의 일상적 이해와 요구보다는 정치성향이 짙은 교지 '교지'라고 '독자'라는 모습을 지어내고 있다.

학우들이 조국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전의 역할을 담당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상적 바탕이 학우 대중들로부터 나와야 함은 더욱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학우들의 참여의 문제이다. 교지가 학우들의 공유물이니 만큼 학우들의 참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간혹 대외보나 '교지발간을 위한 한라산'에서만 '글을 모읍시다'라는 글귀를 대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학우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데 편집인들의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물론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학우들도 뜨거운 각성을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데도 불구하고, 내용의 경직성 내지는 획일성에서 오는 분위기 때문에 전체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넓고도 좁은 실정이다.

셋째, 연1회 발간에서 2회로 늘이는데 따르는 무리함의 문제이다. 교지는 1957년 '濟大新報'제

1집을 시작으로 매년 발간돼 졸업생과 입학생에게 배부되어 오다가 지난 '86년도부터 '한라산'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 제30집까지 발간돼 있고, 제31집은 원고마감이 늦어진 관계로 오는 4월 중순경에야 발간될 예정이다.

"기획안들이 급변한 정세때문에 수정되느라, '원고마감이 지연돼'라고 나름대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장기간이라 할 수 있는 1년동안의 시간을 갖고서도 제30집과 제31집 교지발간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연2회로 발간횟수를 늘리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어딘가 지나 '계획'으로 그쳐버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

물론 편집위원들의 힘겨운 회생으로 연2회를 발간하여 교지의 선전효과를 배로 늘리고 교지내용의 다양화에 충실을 기하며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시기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연2회 발간이 편집인들의 몸과 배에 정기간행물의 정기발간의 생명을 살리려가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진부하고 평이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해보았다.

문제점만을 제기했다고 해서 '한라산'의 올바른 선전매체로서의 역할을 무시하여 '교지대금을 내지 말자'는 의견을 내 오려는 것이 아니라 교지편집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지금까지 교지내용이 사회과학적성을 대변하는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범적인 사회과학적 사업 사례들을 전파하고 건전한 대학생활 문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편집인들이 직접 생생한 뒤에서 학우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는 앞으로의 편집방향처럼 자기평점을 발전의 계기로 삼은 다음에 교지대금 문제를 거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즉, 단편적인 학자나 '○○로 학자' '○○매일장' 학우들을 대상으로 글쓰기운동을 대중화시키면서 문화예술의 자질을 발굴하여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교지대금 수납에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전체 학우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학우들이 교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 교지대금 수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TV화면이 흐르지도 못하고 채널도 다 방송되지 않는 상태에서 TV시청료를 내라는 것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기상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교지대금을 받아 연2회 8천5백부를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성을 통해 학우들로 하여금 '얼마나 읽혀지는 교지를 만들 것인가'하는 문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교지 '한라산'은 그 가치와 위상이 높아져 '교지대금 자진납부'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고희갑기자】

'91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이 지난 2월21일부터 24일까지 각 단대학생회 주최로 학교 곳곳에서 실시됐다.

예비대학은 일반적인 대학생활 안내, 즉, 보직교수를 비롯한 각 학과장 소개, 도서관이용방법, 학사관계 등 단편적인 대학소개의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학교주도형의 오리엔테이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학교측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신입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칠판에 학교지리를 그려가며 설명해주는 것이라 하면, 예비대학은 직접 신입생들과 함께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이곳저곳을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현장교육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비대학이 갖는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정확한 예비대학의 목적은 신입생들에게 미리 대학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게하여 대학생활을 올바른 시각으로 대하고 그에 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신입생들에게 입시위주의 주입적인 교육방식에 비추어 개인적, 이기적인 사고를 벗고 개인으로 공동체적이고 주체적인 대학생활을 통해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것을 비롯, 대학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치러진 이번 신입생 예비대학은 21일부터 23일까지는 입학식을 시작으로 반별토론, 토론내용 발표, 공동체놀이, 강연, 선배와의 만남, 우리학교 땅 밟기 대회, 단원동공인 등의 프로그램으로 각 단대로 실시됐고, 마지막 날인 24일 '총화의 날'에는 중앙자치기구 소개를 비롯, 영화상영·공동체놀이·단대별 신입생 노래발표회 등이 열렸다.

그러나 단대별로 진행될 예비대학의 행사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돼 앞으로 예비대학을 열어야 할 때 더 다양하고 폭넓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함조)

그러면 이번 예비대학이 과연 그 개최취지에 알맞게 제대로 진행됐는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 진정 선배들이 의도한 바대로 선·후배 하나되는 어려움의 장을 마련, 공동체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러나 이번 예비대학의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집행부측에서 너무 큰 것만을 바라나 머지 신입생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버렸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예비대학’을 보고

행사내용 다같이 고민해봐야 진정 신입생위한 ‘사회화교육장’인가

이 오로지 꿈과 낭만과 지성이라는 덩어리로만 통쳐진 것이 아니라, 진정 신입생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선전·선동으로 고등교육을 갖 졸업한 대다수의 신입생들에게 거부감마저 느끼게 했으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경직되고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 참여하는 신입생들을 당황하게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총학생회 문화부장은 예비대학이 끝나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단과대학별로 진행된 3일간의 예비대학은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한 한두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예비대학 마지막날인 '총화의 날'은 거의 분산적이라서 아쉬웠다. 이는 예비대학 준비위-총학·연·동·총대-간의 공통적인 학회·동·총대-간의 공통적인 융합·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탓으로 그 당시 총대에서는 간부인준과 동·연·학에서는 나름의 학내사업계획을 준비하느라 서로간에 행사에 대한 사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대학 기간중 폭설로 인한 기상악화로도 겹쳐진 점도 한가지 원인이었던 것 같다.

영화상영에 있어서도 각 운영위 대표들간의 인식차이로 이를 끝까지 상영하지 못했는데 이 또한 사전 서로간의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매체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정적영상(영화상영), 동적영상(공동체놀이)를 제대로 조화시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허점을 드러낸 것 같다."

신입생들이 건전한 대학공동체 문화 창달의 주제로 담담히 설 수 있도록 지도부들의 그에 따른 충분한 고민과 노력을 구체화시켜내고 그 단계적인 진행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내용들을 흡수·소화해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대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한경희기자】

〈각 단대별 예비대학 행사내용〉

구분	주요 행사 내용
중앙자치기구	중앙자치기구 소개, 지역사회의 시간, 영화상영, 공동체놀이 및 단대별 신입생 노래발표회.
인문대	입학식, 반별모임, 공동체놀이, 참고교육·소감발표, 취미생활동영상, 올바른 대학생활이란? 졸업식 및 축하공연.
법정대	입학식, 반별모임, 반별발표, 공동체놀이, 노래보급, 취미생활동영상, VTR 상영 및 소감발표, 우리학교 땅밟기대회, 정리.
경상대	입학식, 전체공동체놀이, 내가 겪은 대학문화, 강연, 반별토론, 야외공동체놀이, 과별 만남, 우리대학 땅밟기대회, 반별만남, 졸업식, 터울공연.
사범대	입학식, 우리학교땅밟기대회, 반별토론·발표, 공동체놀이, 평가설문지작성, 대동놀이, 졸업식.
농과대	입학식, 반별모임, 우리대학순례대행진, 공동체놀이, 초청강연, 올바른대학생활, 야외공동체놀이, 비디오상영, 졸업식.
해양대	입학식, 과자치기구소개, 우리식구알기, 반별시간, 공동체놀이, 문화교류, 과별모임, 여성문제비디오, 노래극, 졸업식.
자연대	입학식, 취미생활시간, 강연, 과별시간, 토론, 학내탐방, 비디오상영 및 토론, 졸업식.
공과대	입학식, 반별 모임·발표, 사물놀이 및 우리노래 부르기, 반별 토론·발표, 영화보기, 우리 땅밟기 대회, 장기 자랑, 졸업식.
야간강좌	아대인과의 만남, 학생회소개, 대학생활안내, 학과소개, 야간강좌부 동아리소개.

대우가 있습니다

“스물 한살의 봄은 한번 뿐...”



▲아베의 회사를 찾은 윤이영
▼(대우)정회주 상무(특차사업실장)와 올레 대학에 입학한 큰 딸 정은아영



"아베의 대학시절은 참 어려웠지. 옷이 마땅치 않아 군복을 물들여 입고, 복사기도 없어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낭만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 어쩌다 여류라고 생기면 고무줄처럼 질긴 토끼고기에게 매달려서 사귀고, 갑론을박 열면 토론으로 받아 세는 줄도 몰랐지. 너와 함께 교정을 거닐어보니 문득 그때의 젊은 열기가 배어나오는 듯 싶구나."

아빠가 열사의 나라 리비아 모래사막을 돌고, 낯선 땅 나이지리아에서 술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그때의 젊은 열정과 패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빠처럼 너에게도 스물 한살의 봄은 영원히 한번 뿐,

항상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맑고 온순한 눈을 가져야지. 왜 학문을 하느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이 생각해 보고... 아빠 때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찌워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구나."

성실하게 뿌린 씨앗만이 성취의 보람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애써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과 함께 -

대우가 있습니다.

□ '화염병사용 처벌법'에 대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무시... 정당성 결여 '화염병법'은 제도화된 폭력의 표본 존재가치가 없는 법은 폐기돼야 마땅

법은 국민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봉건제시대에는 경제외적 착취와 군주의 명령이 봉건제시대를 지배해 주는 근간이었다면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자본본주의의 이해를 관철해 주는 국가권력의 이데올로기로, 국가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80년대 이후 민주세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민주화요구에 대해 국가권력은 이른바 '악법'으로 알려진 각종 법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악법의 예로는 형사법인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화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88년 호환회에서 출범한 6공화국 역시 초기에는 몇몇의 형상의 민주와 조지 즉, 개함을 베풀었으나 89년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부터는 5공을 능가하는 폭력적 법운용, 법의 난치기 통과 등을 서슴없이 감행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타고 등장한 것이 바로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이것은 지난 89년 5월3일 동의대 경찰청사건에 계기로, 5월27일 국회본회의에서 열린통합 가결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그 수많은(?) 악법중에서도 대학생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여당에서 입법추진의 직접적 계기로 발미삼은 '동의대 경찰청사건'은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한 경찰청사건은 부산 동의대에서 발생한 경찰청사건을 구술하다 화염병을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제가 일어난 동성진압경관 6명이 질식·추락당하고 그밖에 경찰관 11명과 학생 1명이 중상을 입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화염병을 투척한 학생들 외에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과 학원내의 문제를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권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단순한 화염병 사용처벌을 위한 입법에 둔 것은 매우 부적당한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은 극한적인 대결을 지양해야 한다는 여론의 대외와 제도권 4당의 체제유지적 합의속에서 이 법률은 많은 반대의견을 무시한채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법안 입법화 움직임이 일어난 시기는 동의대 사건보다 훨씬 이전이다. 이미 88년 6월27일 치안본부의 화염병의 제조·운반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화염병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동년 6월초에 이 법안의 시안을 마련, 민정당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림피아드에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계획한 시기에 제정을 보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입법화가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동의대 사건이라는 '물'을 만나 본격적으로 논의, 제정된 것이다.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대강 다음과 같

다.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협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조1항)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한 자 또는 화염병 제조에 제공한 목적으로 화염병을 용기에 취납유류등유 등 인화성물질을 넣은 물건을 보관, 운반,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1항)"

그러나 치안본부는 지난 2월19일 일부 대학생들의 파출소 습격 등 화염병 투척행위를 국가공권력에 대한 테러로 규정, 관련자들에게 대한 일반 조직폭력배와 마친가지로 형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하여 형량이 더욱 가중됐다.

이에따라 화염병 시위 관련자는 지금까지 5년이하의 처벌에서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등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게됐다.

이와같은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현 정권의 입법외도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아울러 법의 실정성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폭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난 민정당의 '화염병은 불법무기이지만, 최후탄은 경찰의 직무집행 수단'이라는 발언처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폭력'과 민주화 실현을 앞



당기려는 화우들의 '방어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정당성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 갖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예비단계(보관·소지)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악법, 백색테러 등 이른바 '제도화된 폭력'은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농협출장소-지점승격 앞당기자

보다 나은 서어비스 제공 2백여평 건물 신축 기부 체납

농협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과 농민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농협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도·조사사업·판매·구매등 경제사업과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농협중앙회 북제주군지부에서는 87년도에 우리학교에 출장소를 설치한 이후, 교수의 연구기금으로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에 달하는 89년도부터는 매년 성적우수자 26명에게 총 7백5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학교 출장소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펴나가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농업협동조합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좀더 나은 여건하에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승격을 위한 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장소에서는 대출이 제한되어 있으며(카드론, 가계담보대출은 예외) 예금업무에 있어서도 단순한 예·적금 등만 취급되고 있어 있다(취급불가업무-당좌예금, 환전업무, 국고업무, 양도성예금증서 등).

또한 사무소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현금보유가 제한되어 매일 현금및 전표를 소속군지부에 송부하여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본교 농협출장소의 허상중상장은 지점승격의

필요성을 부산대학교지점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지점에서는 농협이 하나의 독립된 은행으로서, 자금제출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용자를 해 주는 등 폭넓은 대출업무를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지점은 독립된 사무소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립대학 중 농협의 지점화 된 곳은 서울대와 부산대이며, 지금 진행중인 곳으로는 충북대와 경상대 등이다.

이곳의 지점에서는 지점승격후 2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한 뒤, 학교에 무상기부하고 1층은 농협에서 2층은 교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학교 출장소의 경우에도 지점으로 승격되면 건평 200여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학교에 기부체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학교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한다.

우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계담보대출과 카드금융 이외에도 대출업, 당좌예금, 국고, 환전(외환) 등 금융거래업무 전반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증설하고 주회포장기, 주회계산기, 수표감색기, 단말기증설 등 각종 사무장비를 대량 확보할 수 있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종전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서어비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지료를 이용하여 공과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고, 음성통화 정보서어비스(ARS)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 예수금의 규모가 30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출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수금은 23억 정도라고 한다.

이에 우리학교 출장소에서는 저축액을 높이고 지점승격을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거래하고 있는 타은행의 창구를 농협창구로 모두 돌려 창구의 일원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근대의 국립대학의 경우, 지점승격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 것이 바로 이 창구의 단일화 추진이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면화 분유를

를 조성하기 위하여 책갈피(2만 개)를 배부하는 등 지점기반은 물론 학교·학생·농협이 상생협력에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 모두가 출장소에서 일인 일통장을 마련하여 지점기반조성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럼때만이 학생과 더불어 발전하는 농협창구가 조성될은 물론 복지공간의 확충으로 후생복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윤숙이기자】



심판

소비향락의 현상

"아! 오랫동안이다"
"우리 오랫동안에 만났는데 어디에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자"

"2차는 어디로 갈까?"
"오랫만에 몸도 풀겸 발바닥 떼나 벗기러 갈까?"

겨우내 스산했던 아리골에 개강과 더불어 이제 제법 외로운 티가 나는 신입생들을 비롯, 웬지 낯설어 보이기만 하는 복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새학년 새출발을 시작하는 학우들로 마냥 북적대고 하위법인 특별법이 상위법인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음은 엄연한 모순인 것이다.

게다가 88년7월부터 90년10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1천2백66명을 구속, 단일 법률로는 하루평균 2.63명이 구속되는 기록을 보았다. 즉, '화염병등 폭력없는 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제정한다는 걸로 내세운 의도와는 달리 이 법이 발효된 이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화염병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시국관련 구속자만 더욱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지금까지 잘 적용(?)되어온 이법은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작게는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 크게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에서 생겨난 최소한의 자위수단인 화염병의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법률만을 강화한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며, 나아가 국민의 한사람까지 법이라는 테두리안에 가둬버리려는 반민주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어느 성인이 말했지만, 그 법 자체에 이와 같은 모순이 내재하는 한, 그 악법은 더이상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존재가치가 없는 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법의 모든 학우들이 모두가 투옥될 것을 각오하여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술부】

우리가 한민족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진취적인 무언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기대하다가 오히려 모임전보다 기분이 더 나빠져 "차라리 오지 말걸"하고 후회하며 술술히 발걸음을 들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한 몇몇 학우들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의 만취된 상태에서 저지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이 학우들간의 말다툼, 심지어는 주먹다짐으로까지 번지는 등 혐악한 분위기가 형성돼 모임 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되어 버릴때도 간혹 있다. 우리는 '친목도모를 위한 장'이라고 이를 불여지는 우리의 많은 모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로 인해 오히려 서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위한 한때의 일시적인 자비로만 머물러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러한 소비향락적인 모임의 풍조속에서 어느덧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부재이다. 새로운 만남과 시작이라는 슬로에는 가슴들의 모임은 비단, 요란한 음악과 현란한 조명아래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모임 하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대학인으로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들을 얻고자 자각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먹고 마시는' 일시적인 차원에서 벗어난 선·후배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멋스러운 '공유'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

농협은 여러분의 고향과 함께 있습니다

봄이면 아기진달래,
여름이면 참외 익는 향기,
가을에는 풍년가 메아리 치는 황금들,
겨울에는 화투가에 피는 푸짐한 이야기꽃...

도시인에게도, 농촌사람에게도
정겹고 푸근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고향의 추억
농촌은 우리 모두 마음의 고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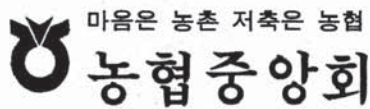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의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예전 같지만은 않습니다.

농협은 농촌을 되살리고 푸르른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향 농촌을 소중히 지키고 풍요롭게 가꾸
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하여 민족자존 일깨우자

농협이 펼치는 사업들

- 나와 농촌을 위해 - 우리 농산물 애용
- 우리의 식생활 - 쌀밥문화
- 고향의 참맛을 전해주는 - 내고향 특산물 주문판매
- 값싸고 편리한 - 농협수퍼마켓
- 부모님의 든든한 안심대책 - 농작업 상해공제
- 농가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 내고향저금
- 고향 직접지원 - 물품 및 성금보내기
- 사랑의 고리 - 고향마을과 자매결연 맺기
- 새로운 출발 - 농협촌수품 이용하기
- 고향정취 들뜬 - 농가민박, 농촌 휴양마을 이용하기

-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해사고에 폭넓은 보장을 해 드립니다.
- 저렴한 공제료를 단번만 납입하면 됩니다.

재해보장공제 1,000만원 가입시

- 납입할 공제료(공제기간에 따라 아래금액을 1회만 납입)

공제기간	3년	5년
공제료		
남자	37,700원	57,400원
여자	37,300원	56,700원

●사고시 수령하는 공제금

사 고 종 류	수령공제금
재해로 인한 사망·폐질	1,000만원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700만원~100만원

취급업무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은행업무 - 예금, 적금, B·C카드 및 카드론, 온라인 송금, 타은행 송금
- 공제(보험사업) ●지도사업 ●장학사업 각종 공과금 수납
- 농협특별저축상품 - 내고향저금, 꿈나무저금, 이자보호예금, 근로자장기저축
- 전국 최대의 점포망(500여 점포)과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어 전국 어느 지방에서든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
- ※ 신종저축상품 : 근로자를 위한 비파세 고금리 신상품 (근로자 장기저축)취급
- ※ 현금 자동지급기 설치 가동중
- ※ 수입인자 무인판매대 설치 (제 증명발급시)

통장들고 걷는 걸음

행복으로 가는 걸음

농협중앙회 제주대학교출장소 직원일동

☎ 56-1119, (구내-2381)

25일 아침부터 식대 기습인상

특식 1,200→1,500원 정식 500→700원으로

인권복지위, 대자보 통해 인상철회 요구

“식대인상과 소비조합노조원 임금인상은 병행돼야”

지난 25일, 아침을 기해 후생과에서는 학생대표들과는 일말의 합의도 없이 특식은 5백원(중전 1천2백원), 특식과 정식은 7백원(중전 5백원)으로 구내식당 식사대금을 대폭 기습인상해 대다수의 학우들을 당혹케 하고 있으며 행정의 일방적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 식대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재차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대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월25일 1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이사회의에서 2시간여의 논의 끝에 특식은 1천2백원에서 25% 인상된 1천5백원으로 정식과 정식은 5백원에서 7백원으로 40% 인상하고, 중전 주식재료로 일반미와 정부미를 63:37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1천2백원(1백%)로 통일하고, 국수는 이용자가 많은 품목이므로 동결시킨다는 원칙에 대해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소비조합의 운영상의 제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벌어져 학생대표측에서 식대인상 합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재차, 합의사항을 파기한 후 소비조합의 문제를 검토한 후 식대인상문제를 재차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후생과측에서도 이날 있었던 임시이사회의 합의점들을 정적과 정식은 5백원에서 7백원으로 40% 인상하고, 중전 주식재료로 일반미와 정부미를 63:37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1천2백원(1백%)로 통일하고, 국수는 이용자가 많은 품목이므로 동결시킨다는 원칙에 대해 일단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소비조합의 운영상의 제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벌어져 학생대표측에서 식대인상 합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재차, 합의사항을 파기한 후 소비조합의 문제를 검토한 후 식대인상문제를 재차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소비조합직원규약 개정안, 90년도 소비조합 회계 지출예산 전승승인 신청안 및 91년도 구내식당 식사대금 인상문제를 제의한 나머지 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교 '소비조합 직원 규약'에 대해서는 본교 소비조합 노동조합이 90년 5월 제주시에서 설립되고, 동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지난해 12월 체결되었는데 본교 소비조합직원규약을 단체협약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총 15개항을 개정, 이중 1개항을 삭제, 9개항을 신설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은 직원에게 1일 1시간의 종식 및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다만, 사업장별 휴게시간은 상조회의 결정한다.

△조합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3월1일과 9월1일에 1년마다 정기적으로 호봉을 승급조치하며 10호봉을 초과한 호봉으로 한다.

△조합은 직원에게 연회차 1%의 인상을 실시한다. 다만, 식당부와 자동판매기부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식품위생관리법상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3법규정을 준용한다.

이제부터 학생이사 4명, 교직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1990년 3월 25일 소비조합임시이사회의에서는 소비조합에서 상정된

해 커피재료, 품질 및 기타 사용상의 불편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판매기 관리요원 1명을 증원하는데 따르는 인건비와 기타 소비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책정된 91년도 소비조합 예산액 2억7백90여만원에서 일부 항목간의 과부족액을 조정(전용)하여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91년도 구내식당 식사대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의의 80년 소비조합 출범 당시부터 10년간 동결된 채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기타 인건비, 재료비 상승으로 식당부 적자운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동안 식당운영의 적자를 자동판매기 수익금에서 충당하여 왔었으나 현재 자동판매기 수익금에서의 충당도 한계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식대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갑작스런 식대인상은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를 위해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학생이사들이 총학생회와 인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월25일 오전11시 재차 임시이사회의를 소집, 식대인상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소비조합 노조측과 학교측간의 임금협상에서 노조측은 상박후의 인원에 의해 20%, 1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소비조합에 상박후를 이유로 상박후의 인원에 의해 13%, 10%의 임금인상을 제시, 21일·22일 협상이 결렬되고 오는 27일 또다시 임금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인권복지위원회의 위원장 양성복(통과)학우는 “소비조합 노동조합의 지금까지 임금협상을 살펴볼때 너무도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의 임금인상요구는 당연하다고 보아지나 학교측에서 주장하는 ‘식대인상 없는 임금인상’은 없다라는 말에 어찌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식대인상과 임금협상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후생과측에서는 인본주의적에 제기한 공개직의와 어떻게 일방적으로 식대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타당하게 해명해내야 할 것이다.

특자의

濟大新聞은,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줄이은 교내행사

일정기간에 집중 개최 바람직

91년도 새학기가 시작될지 벌써 20여일 남짓 지났습니다. 그동안 91학번 새내기들도 들어오고 학교가 다시 밝아진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라인 여러분 우리모두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단 소수만이 느끼는 일은 아닐것입니다. 즉 제가고자 하는 일은 지금 학교 분위기가 신학기 분위기가 아니라 학기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달정도 있으면 5월 큰잔치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축제제인지 신학기 분위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갖은 행사가 여려날들을 거쳐 이뤄져서 정말 새내기들이 익혀두어야 할 대학분위기를 서서히 익혀 가는 것 같지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행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기에 이뤄지는 발대식, 환영회 등을 일정한 기간, 적어도 한 주를 정해서 몰아붙여 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몇몇개의 학과 8개의 단대가 각각 행사를 다 하느라 바빠서 학과별, 학년별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학우들의 태도를 보면서 학원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모든 문제가 교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제도의 비위에 맞는 학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모두 어떤 행사 하나를 하는데도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짧은 기간이라도 유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학과·현혜경)

미국식 길들이기

UIP직배영화 무방비 수용

아직까지도 상영중인 '사탕과 영혼(Ghost)'이라는 영화는 연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형편이다. UIP 직배급 영화이면서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유희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 두 남녀의 순수한 믿음과 부끄러움 분위기, 그리고 한 학생의 자의적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텔레비전, 화이트보드에 따라 춤을 추듯, 사탕이다, 꽃이다하고 난리를 치는데 일반인들도 사람과 영혼이 섞여있었다고 생각하니 정작 '우리'의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랑했는지'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영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미국영화는 보면 자국의 우월성과 조금은 허풍성(?)이 가미된 미국정체감을 은근히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저 재미있게 보면 되지, 거기서 또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문화가 온연중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파고 들어왔는지, 우리의

진정 사랑으로 매기는 성적표

최루탄 가스 자욱히 퍼진 교정을 바라보며 시위진열에

거리감 없는 선후배

대학에 합격하고 제주대학교를 들어섰을 때는 조금의 자부심과 무언지 모르는 두려움 설레이는 내 가슴속에 '하와이형개발'을 반대했던건 그러한 땅에서 미국의 우월성과 상업성이 빛어낸 영화가 장기상영은 물론이고 사상 유례없는 최고 흥행률을 이루었다고 하니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영화 중 70~80%는 미국영화이다. 미국영화를 보면 자국의 우월성과 조금은 허풍성(?)이 가미된 미국정체감을 은근히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저 재미있게 보면 되지, 거기서 또 뭘 그렇게 따지느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의 문화가 온연중에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파고 들어왔는지, 우리의

학교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

1. 처음에는 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유지선에서 인상가격을 정했고, 나중에 질개선이 될 것을 전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가격을 동일하게 정했다. 질개선이 됐을 때나 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두 식대는 같은 폭으로 인상된 것은 엄연한 모순이다. 그런데도 식당운영이 가능한 것을 보면 불과 한달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변화원인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89년 결산서 수당지급내역과 보수명세서와의 차액이 총 6백만원 정도 생겼는데 과연 이 6백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로 생겼는가?
3. 결산서 기본급과 보수명세서의 기본급과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라·我羅

○...정말 물고문(?) 맞췄 보여줘야겠군. 말발은 제주도 생수가 또한번 호환을 누리게 됐다는 희소식 아닌 희소식이 전해와.

두산전지에서 압과 생식이상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하여 영남지역 주민들이 식수도 마실수 없고 먹을 수 없게 되어 전국이 떠들썩.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갈아먹는 무리들에게 그 물 싣는 버크 해줄시다.

○...형님을 알아야지.

5공시절 '한강'을 되살린 주역(?)으로 자처했던 전씨가 물러나서인지 아니면 단속소속을 틀러 패수를 갈을 때 때려보내는 악덕기업들이 많아 서민전국의 모든강이 오염돼 식수마저 마음대로 못먹을 정도로 위험상태에 놓여있고.

5공이 '한강'을 깨끗이 했다고 유세했던 6공도 '나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그 형님의 자랑스런 아우가 되지 않겠소.

○...급급내사의뢰 최근 사회의 물의를 불러 일으키는 자가 있어 그의 실체를 파악해야겠으니 그대들은 순신에서 내사해 주시오.

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옛보안사)의 배후사상과 성향.
2. 기무사 가족권 친·인척사상(한기무·치안본부...).
3. 사후문제권 인물(정치인?)들과의 접촉등 경소안등.
4. 기무사에 대한 인근 주민의 편·위 사항을 내사한뒤 속히 보고하기

긴급 내사의뢰

바라오.

○...최후의 발악 사회 곳곳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작태들이 연출되는 가운데, 치안을 담당하는 곳에서도 이에 부응해라.

치안본부에서는 지난 19일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즉시 행사입건, 공식수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본래 우리나라 사립의 성미급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대들의 성미급함은 우리 민중들의 실천적 역량이 더욱 강고해졌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어서 아라구 표정언기가 곤란하구로.

우리, 그런 의미에서 꽃병(화염병) 들고 찍은 단체사진을 아라구출소로 보내주는 것은 어떻겠소?

○...사제간의 정. 연재부터가 지나치게 사무적인 분위기 학교내 침투해 정이타고 있는 눈발만큼도 찾아보지 않더라.

손님이 집에 오면 껌이 인사하는 법인데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 서도 학생들이 무표정한 상태로 있는 게 예사이고, 교수님들도 묵묵히 출석을 부르고 강의를 진행하기도 해 대학 강의실인지 사설교습소인지 구분이 안가.

아무리 메탈라가는 사회라지만 예로부터 동방의지국이라 했거는 오고가는 인사속에 사제간의 끈끈한 정을 싣기우는 봄이 되었으면 하오.

○...고려의 계단. 명문제대 건설을 위한 불타는 학구열도 비오는 날만은 어쩔수 없이 자제해야 할듯.

도서관으로 향하는 '백발계단'이 그 아발로 '고려의 계단'으로 탈바꿈해 비오는 날이면 계단마다 뿜어내고 학우들의 향학열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봄이신들, 다른들 몰라도 공부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게 아닌가요?

本 社 辭 令

제대신문사 제39기 수습기자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일반기자
 △김정훈(법학·1) △지은숙(사학·1) △김영규(행정·1) △김현철(경영·1) △고지연(국교·1) △고영신(국문·1) △김도영(수학·1) △김정숙(관공·1) △김미미(과공·1) △고은숙(사학·1) △이경희(국문·1) △고현승(행정·1) △박선영(관공·1) △양진욱(국문·1) △고상은(일본·1).

▲사진기자
 △김용환(수학·1) △이재영(사학·1) 이상 1명.

위의 합격자는, 3월30일(토) 오후3시에 입사식이 있으니 본사 편집국으로 오기바람.

실용 컴퓨터 실습 훈련생 모집

우리는 지금 국제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물론 전산업체의 전산정보시스템의 실행으로 취업예정자 및 직장인들의 필수조건인 전산정보 실무에 거론할 수 있도록 한글사용이 가능한 우리 현실에 맞는 실기위주의 숙성과정으로 컴퓨터 O/A실무교육 특별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장소 : K.D.S 제주훈련센터(삼동동 남문동 소재)
 2. 교육기간 : 4개월 *개강 : 4월20일
 3. 대 상 : 남·여 직장인, 학생, 주부, 취업예정자

———— 교육시간표 및 진행방법 ————

시간표	월·수·토	화·목·일	교육 내용
1	10:00~11:20	10:00~11:20	MS-DOS의 응용프로그램인 PC.TOOLS에 대한 체계교육
2	11:30~12:50	11:30~12:50	문서작성용 프로그램 교육
3	1:00~2:20	1:00~2:20	DATEBASE III(데이터의 관리, 보관) 교육
4	2:30~3:50	2:30~3:50	각종 수치와 계산을 처리해주는 (장부, 회계, 급여처리, 물품관리) 소프트웨어인 로터스 1-2-3 교육

4. 교육자료 : 1권 - MS-DOS, 2권 - WORDPROCESS, 3권 - DATEBASE, 4권 - LOTUS1-2-3, 5권 - 각 과목별 실습용디스켓 10장

5. 교육비용 : 38,000원씩 5회분 (총 190,000원 이 비용은 교육자료비이며 기타비용은 일체없음)

6. 접 수 처 : K.D.S 제주훈련센터 전산부 ☎ 56-5472

7. 접수기간 : 3월26일~30일까지

90년 초·중·고 컴퓨터교육심사, 91년관공서행정업무전산심사, 92년공무원채용, 순진 컴퓨터교육제, 95년 1가구 단말기보급

韓國데이터 서비스 제주훈련센터
 Korea Data-Service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갈 대학인의 지혜

제10회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논 제 : ○전환기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북한사회 개방화를 위한 실천 전략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과제

※ 택1

대 상 : 대학 재학생 (전문대학 포함)

시 상 : ○최우수작1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100만원
 ○우수작2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50만원
 ○가작3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30만원
 ○장려5편 :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20만원

※ 각각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소련·독일 등 해외연수기회 부여

마 감 : 1991년 8월 31일

분 량 :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내외 (단, 5매내외의 요약내용 동시제출)

발 표 : 1991년 10월중 (개별통지)

보낼곳 : 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논문 제출시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상세한 내용은 통일원(☎ 02-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 연구소에 문의

통 일 원

컴퓨터이용신청접수

91학년도 1학기 컴퓨터(VAX-11/780) 이용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이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록자는 재신청)

*PC사용자는 등록이 필요없음.

아 래

1. 등록기간 1991. 3. 12~3. 29 (토요일 제외)

2. 시 간 14:00~16:00

3. 장 소 전자계산소 상담실

전자계산소

문학작품에 나타난 이혼문제

양영자

국문학과 석사과정

I

결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보통은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호적상의 수속을 마쳐서 하나의 세대를 차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결혼식은 하나의 형식이지 결혼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식 없는 결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결혼에 올리는 것은 소위 결혼을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일 뿐이다. 결혼의 실질은 식(式)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법률에서조차도 그러한 것을 결핵한 내면까지 결혼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결혼이란 인간의 생활관계이고, 일반적인 사회관계에 의해서 결혼관계의 모습이나 가치관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여사는 부단히 운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결혼상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남녀의 애정관계가 기초로 된 일부일체제가 가장 완벽한 결혼제도로 확립되어 있다. 반면에 이혼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자유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보장일뿐, 사회적·경제적 보장이 안 되는 이혼일 경우가 더 많다. 결혼은 인륜지대사이며 한번 결혼을 하면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 해야 한다는 종래의 관념 그대로라면 오늘날 이혼풍속도는 심히 그 질서에 어긋난다. 아름다운 한평생 사느니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자녀를 맡지 않겠다고 기피하기까지 하며 여자쪽에서 위자

로도 필요없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학은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며 반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문학작품속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시대사상, 인간의 사고방식, 행동의 변화등을 가늠해 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물론 이런 작업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대개의 작품의 경우 어느 일부분의 특수상황과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논한다는 것은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격적인 이혼문제를 다룬 작품은 거의 찾을 수 없었으며 설령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처리하고 있거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마 문학작품에서 이혼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70년대가 아닌가 한다. 특히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띠고 인간관계에 관심이 쏠려지면서 여성문제가 취급되고, 남성중심의 성윤리에 대한 비판, 이혼의 자유, 가족제도에 관한 것들이 다루어져서 이런 작품들을 가리켜 '페미니스트 문학'이라 일컬어졌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인식되고 또한 여성 작가들에 의해 줄곧 다루어져 왔다. 사실 이혼문제를 포함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남성작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혼이 사회문제이면서도 여성의 문제만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II

문학작품에서 이혼의 문제는 주로 중류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 및 경제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만 형식



적인 법적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리 말하면 현행법의 이혼에 관한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서민이나 도시빈민들은 실제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거나 이에 그럴 엄두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도 서로 떠나가고 혹은 합쳐서 살아가는 것이 질서처럼 되어 있다.

황석영의 「돼지꿈」(창비사, 1974)은 철거민촌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장치는 50대의 고를 리어 커싱이다. 천장에서 풍랑으로 고 기둥이 남편을 잃고 남매를 데리고 열차에서 계곡의 장사를 하던 과수원을 찾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강씨네가 데리고 온 딸이 손이 어느 청년과 사이에 아이를 가졌는데 군인대를 하고 나서 연락이 끊긴 상태이다. 배우는 미순이는 국수장수 왕이란 청년에게 청혼을 받게 된다. 왕은 배속의 아이는 자신이 애비노릇을 하며 키우겠다고 한다. 이들이 어떻게 이루는지는 정조관념이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실패하자 결국은 전남편의 아들 소장사 밑으로 자신의 재산이 쓰이게 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 경우 배우자의 약의 유가임에도 그것에 대한 자각이나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라 하겠다. 이 작품에서는 형편에 따라서 간단한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배우자를 골라서 떠나는 지장이 없는 느슨한 대우혼의 형태로 결혼이 나타난다.

윤정모의 단편 「누에에 왜 고치를 떠나지 않는가」(흔들레 소설문학, 1987)에서는 딸아이 소나를 낳고 아유를 못본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당하고 위자료료를 받는다. 남편은 딸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자신이 삼대독자라는 걸 세세히 이해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8살난 딸을 데리고 서울에서 3백리나 떨어진 산골로 이사를 한다. 그녀의 피해의식은 매우 심해서 자신을 「뽕서리」를 맞은 여편네로 생각한다. 이 여인에게서도 역시 이혼의 부담함에 한겨레나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볼 수 없다. 남편의 위자료 유고이며 아내로서는 「뽕」을 얻었다는 말 자체가 기분을 중시하는 한 인간관계에서 성립하며 특히 남아선호사상까지 합세하여 여성들을 힘들게 해왔다. 삼중고도, 천거지악으로 여성의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폐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 결혼의 자유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문학사, 1987)의 원미동 연작 「방울새」에 나오는 윤희는 아들을 데리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혼모이다. 중매결혼을 했는데 술한 거지랄과 남비비, 도박병 등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이혼여자가 되었다. 윤희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 자신의 삶이었으므로 스스로의 미래를 거둬달라고 남비비, 도박병 등을 잊으리라 생각했고 결혼 역시 그런 남편의 소인이었는데 전혀 방치되기에 이르렀으며, 남편의 들뜬 격리처분에 협력을 느꼈다. 윤희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매사에 신중하게 계산해서 처리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이혼하고 나서도 낙담하지 않고 더욱 화사한 모습으로 돈버는 일에 몰두했으며 이혼까지 남에게 성공적으로 비쳐졌다.

남성작가로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김원일의 「새가 매 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새가 매 이야기」는 나의 입을 통해 친구 명혜자(명미, 지혜) 가족에게 하고, 나의 이야기를 곁들여 주고 있다. 명혜자씨는 경찰계로 몸을 담고 있는데 말한 것이어서 아들을 둔다는 이유로 명혜가 중학교 들어갈 즈음 단정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남비비인 심해서 아버지보다 하여금 가정을 버린 동기가 되었고, 게다가 어머니가 계주인 계가 파산되어 계주들이 신문사에 투서 소동을 벌이자 스스로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는다. 명혜자씨는 부수입으로 벌어들인 돈과 부동산을 생면부지의 채권자들로 부터 지키고 직장을 고수하기 위해 합의이혼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재산을 물려받은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논리와 팔자타령, 마누라의 성격을 교묘하게 나갈 수 없다는 단식, 아들에게 대한 집착 따위가 이혼사유로 불려졌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혼을 물려받은 음으로세 빚타령을 떠맡고 이혼과 함께 새자녀를 얻으려 떠났으며 다른 한쪽은 젊은 부인을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명혜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

문시프여사

“인류의 모든 현안문제는 사랑으로만 해결 가능”



“내가 여행했던 1백53개국 가운데서도, 서로 융합하려고 노력하며 건설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매해랑 기즈 문시프여사(67세·세계 여성지도자)를 지난해 12월14일 G.J.Boivin교수(영어교육과) 아파트에서 만났다.

“제주도라는 지역이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졌는데, 신혼여행만을 위한 지역은 아닌 것 같다”는 그녀는 “제주도는 독특한 환경과 도민들의 풍습을 잘 조화시킨 대표적인 지역이다”고 제주의 첫인상을 피력하면서 “제주해녀들의 활동력을 못본 사람들은 본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년전에 와서 본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보았을 때 달라진 것이 있는지는 질문에 그녀는 “사람들의 눈이 상당히 넓어졌다”며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큰 성과”라고 지적한다. 바하의 신앙이 자기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했다는 그녀는 “인류의 모든 현안문제들은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모든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여성만이 이 세계를 가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진 계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다음 세대를 기르는 최초의 교사가 바로 어머니인 만큼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이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세계인을 하나의 국민으로 보고있는 바하인생을 가진 그녀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사람들이 생애목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설한다.

세계여러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다며 제3자 입장에서 남·북통일은 확실하다고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파괴적인 것에만 힘을 모은다”면서 “그 좋은 젊음의 힘을 건설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요즘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며 “모두가 자기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충성해야 한다”는 그녀는 학생운동에 대한 질문에 “말만으로는 무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연행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濟大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제대를 사랑하는 자랑스런 아라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상징물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교심, 자존심 이런 것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학교의 상징물을 통해 애교심을 함양하고자 교표, 교가, 상징동물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학우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상징동물) 우리학교를 찾는 손님을 위해 우리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슴상을 보면 사슴을 연상하게 아니라 사슴 앞일 것입니다. 사슴은 본능적으로 깊은 산속에 살면서 약초가 되는 풀만 먹으며 역사와 설화속에서

왕관과 최후이라는 복합적 상징으로 등장하는 외유내강의 품성을 지닌 동물입니다.

이러한 사슴처럼 재임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 축적에 정진하고 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외유내강한자가 되자는 의미에서 1982년도에 사슴이 우리학교의 상징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슴상은 단지 기념촬영을 위해 우리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슴상을 보면 사슴을 연상하게 아니라 사슴 앞일 것입니다. 사슴은 본능적으로 깊은 산속에 살면서 약초가 되는 풀만 먹으며 역사와 설화속에서

권하고 싶은 책

북한개론

북한을 체계적으로 분석

본지는 이번호(제413호)부터 독자여러분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추천받아 연재합니다. 평소 읽었던 책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매수: 5~6매) (역은이 씀)



시대의 흐름에 소련, 중국, 동구 유럽보다 훨씬 괴물적이다. 왜 그럴까? 그 해답은 북한의 특유의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과정, 교육과 문화, 사회문제, 대외관계 등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21명의 교수들이 집필한 「북한개론」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기초한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북한에서 나온 자료까지 이용하여 각 부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나의 아쉬움은 이 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과학성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기초한 해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이책의 집필자들로 이데올로기론의 대립 시대에 성장하면서 그렇게 길들여진 틀에 기초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것은 또한 객관적 실체에 대한 주관적 인간의 思考의 한계이기도 하다.

정대연 사회학과 부교수

역사적으로 볼때, 이 세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 나라들이 몇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왔다. 2차 대전후에는 이데올로기가 기준이 되어 세계가 동·서로 나누어졌다. 이런 시대에는 한 나라의 활동범위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관계보다는 이데올로기가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 민족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조선말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왔지만, 2차 대전후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2차대전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세계가 둘로 나누어지는

과정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의 실험대상 내지는 희생물이 되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의 증거로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2차 대전이후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민족보다는 이데올로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결정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거나 또는 왜곡된 정보만 접할 수 있었다.

지금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 마디로脫 이데올로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데올로기란 작게는 조그마한 집단, 크게는 한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정신으로서, 이

정신을 제도라는 수단으로 표출되어 있다. 각 가정에도 家訓이라는 기본정신이 있다. 이 뜻집과 가훈이 다르더라도 가훈이 비슷한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이웃끼리 어울려 일상생활을 해 나간다.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거창한 개념으로 보지 말고 가훈이 다른 이웃끼리의 관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보면 될 것이다.

이 脫이데올로기의 움직임은 이미 최근 소련, 중국, 한국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서로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同床異夢이지만 어쨌든 脫이데올로기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같은 민족인 북한은 아직 이 탈이데올로기

대영인쇄사는 제주 인쇄문화 발전에 공헌을 다 하였습니다.

“독일산 하이델버그 양면 2색칼라인쇄기 제주상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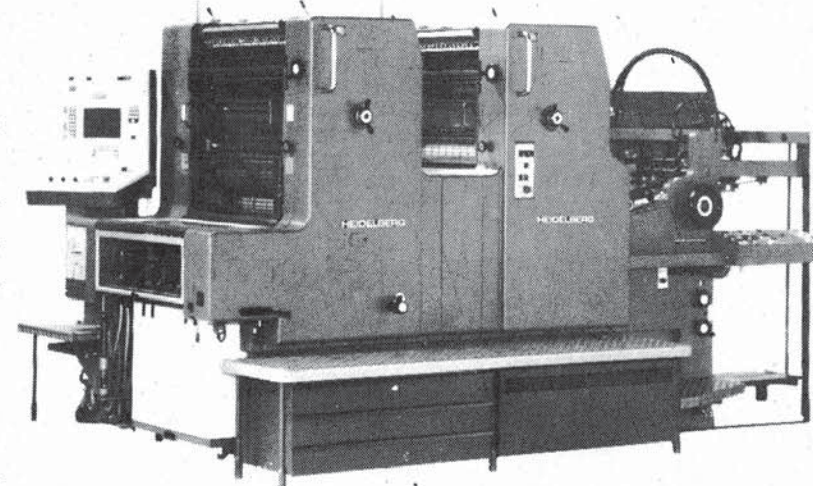
- 1층: 사무실, 기계실
- 2층: 편집실, 기획실, 전산실
- 지하: 제본실, 총11평



인쇄를 통한 시각 정보 전달방법도 급속한 문화의 발달속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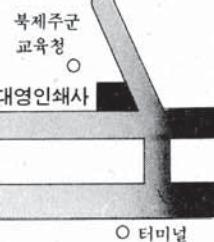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제주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주 인쇄업체로서는 대영인쇄가 최초로 독일산 하이델버그(HEIDELBERG MOZ) 양면 인쇄기와 독일산 폴라재단기(POLA Cutter)를 도입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영은 제주의 자존심이 걸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같은 막대한 설비투자자와 함께 인쇄공정, 각부서마다(영업부, 편집부, 디자인 기획부, 전산 조판부, 음색인쇄부, 경인쇄부, 제본부) 전문인력을 투입, 분업화된 전문작업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인쇄물의 질적향상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품기일 준수에 확실한 약속을 드립니다.



대영인쇄사 Super-Writer 제주출력센터

제주 시 용담1동 2820번지
TEL. 56-3313 / 3314 / 3315
FAX (064) 23-5279
서귀포시 서귀동 295-7번지
TEL. 32-3343 / 6123 / 62-3343
FAX (064) 33-3713



영업종목: 논문·연구보고서·팜플렛·카드·도서출판·각종 원색인쇄

오·십·시·오·자·신·있·게·보·여·드·리·겠·습·니·다.